

이번 大倭戰 終戰記者會見 을 들은 금리
 그대로 이 廣島의 한 사람으로 해서 소감이
 였을 수 있겠는데 그런 소감을 말한 원
 리가 있더라, 나는 평생을 무위함이니
 북장관 것은 모른다. 단지 생활 주변의
 무위만을 기억할 뿐이다.

무엇으로도 죽으면 삶이 깨끗할지도
 모르지만 금리는 비명을 이따 소리 높여

줄이 적히 된다고 보는 한 서민의 의견에
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다. 그뿐이
 아니다. 올해로 이제 ^{전기}화력 100% 되어
 이제 TV, 라디오 등으로 <문화> 혜택을
 모두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 반가운 일
 이다. - ~~한~~ 이 경제 체제 하에서 권력을
 쥐고 있는 자를 막는 반면에 ^{전기}화력을 통한
^{전기}화력에 같은 ^{전기}화력 하고 들어 가는
 그러면 그 ^{전기}화력과 수익성 사이의 거리는
 점점 더 멀어질 것인데 이런 분배는 어

룡제 글 보면 물가가 그백 33 만 6 천
 가구인데 비논 총면적은 1 백 29 만 평보라
 4 행글하면 한 가구의 8 까지 기 정도에
 성가지를 갖이^게 ^되는데 그런 가구는
 부^부족인 터지, 그런데 8 까지 기까지 4는
 1백 80 가마^의 값을 45 만 원, 그런데 그
 것을 위한 영농비만 27 만 원^이 ^{27 만} ^원 ^이 ^{27 만} ^원
 그런데 그러한 부^부족의 한 가구의 사례를 보
 면月生流^가 56,800 원이다, 그러면 4
 681,600 이 된다, 그럼 4 48 만 정도는

9월 14일 한강의 연초
 10월 10일 한강의 연초
 11월 10일 한강의 연초

의 추후를 무엇으로나 배주어야 한다. (추
 1900. 1.26 기사참조) 이제 사실이라면 4
 4 만 원 초과를 구가한 행헌이 이년 뒤 하
 다.

백 원 분 주를 이리는데 그 ~~것~~은 공장이 된
 도리 갖다줄 줄라 직전 된다. 그런데 정부
~~의~~ 강제로 만든 노동자의 월급이 3 만 원
 미만인 74.9%를 꺾이고 있다. 한다
 (3 만 원 이하인 여까지 내려가는지도 보를 일
 이리방) 그런데 5인가족 최저 생활비 ^를 정부

9만 1천 5백 80원 (정해기획원) 이라고 발표하
 고, 한국은행은 10만 17천 9백 44원,
 노조로서는 13만 17천 5백 72원 이라고 본
 은 발표했는데 어불거려도 10만은 밖어
 에 산수 있다. 그런데 이런 무슨 줄인가,
 이 돈들은 다 어디로 가는가. 특히 돈은
 제일 많이 버려 드린다는 섬유회사에서
 임금을 40%를 상회 하는데 그
 등 평균 (평균이라는데 언제나 4백원 초과하기는
 아니지만) 임금이 3만 2천 2백원 이라고 한다. 이

령제 본연 ^{의제} ~~정~~정상으로 되살아나도록 힘써
 궁극적으로 늘기보다, 때로 이것은 ~~정~~정신
 을 억제하므로 건전한 국민운동의 일환
 인지도 생각해 본다 그러나 거기서 ~~정~~정
 의식은 바로 ~~정~~정신 ~~정~~정신 ~~정~~정신의 본질로 보거
 나 ~~정~~정신 ~~정~~정신의 학제론의 현상은 보면
~~정~~정신에 있어서는 아랑곳이 없는 것 같다. 특히
 해나 전국의 무형유산 10만 넘는데
 거기 취미 인구 170만 그중 70%가
 20대 전후의 우리들의 딸들인 ~~정~~정신